

여전히 굳건한 구자욱, 신예·베테랑 모두 보며 채찍질한다

최근 5년 간 단 한 번 빼고 매년 황금장갑을 손에 넣었다. 꾸준히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구자욱(삼성 라이온즈)은 후배들에 자극받고 선배들을 따르며 여전히 자신을 채찍질했다.

구자욱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외야수 부문 수상자로 호명됐다.

이번이 없는 수상이었다.

구자욱은 올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을 딛고 결국 142경기 타율 0.319 19홈런 96타점 106득점 OPS(출루율+장타율) 0.918을 기록, 이듬해를 증명해 냈다.

그리고 이날 구자욱은 총 유효 투표수 316표 중 217표(득표율 68.7%)를 받아 안현민(KT 위즈·79.4%)에 이어 2위의 기록으로 외야수 부문 수상자로 이름이 불렸다.

이로써 그는 지난 2021년에 이어 2023년부터 3년 연속 황금장갑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다.

"내년에 또 다섯 번째 골든글러브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구자욱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은 같은 팀 후배 김성윤이다.

올 시즌 127경기에 출전해 타율 0.331 6홈런 61타점 92득점 26도루 OPS 0.893을 기록, 말 그대로 맹활약을 펼친 김성윤은 유력한 골든글러브 수상 후보로 점쳐졌다.

하지만 그는 이날 116표(36.7%)를 받는데 그치며 빅터 레이예스(롯데 자이언츠·41.5%)에게 밀려 4위를 기록, 생애 첫 골든글러브 기회를 놓쳤다.

이에 구자욱은 "김성윤은 골든글러브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다. 올해 성운이가 보여준 야구는 팬들에게 김성윤이라는 이름을 각인시켰다"고 함께 아쉬워했다.



삼성구자욱이 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5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외야수 골든글러브 수상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시스

구자욱, 2025 골든글러브 차차... 최근 5년 간 4차례 수상

"안현민·김성윤 보며 자극... 최형우·양의지처럼 되고 싶어"

이어 "이 아쉬움을 가슴 속에 품고 내년에는 압도적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응원을 보냈다.

김성윤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성장은 구자욱에게 자극이자 동기부여가 된다.

구자욱은 함께 골든글러브를 안은 안현민을 거론하며 "정말 괴물 같은 선수가 등장했다. 김성윤도 그렇고 더 좋은 선수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자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을 보며 자신의 신인 시절을 돌아

본 구자욱은 "처음에 받았을 때는 정말 어린이처럼 좋았다. 지금도 정말 기분 좋고 설레는데 그때만큼 표현을 잘 못 하겠다"고 멋쩍게 웃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까마득한 선배들을 향했다.

불혹이 넘은, 그리고 불혹에 다가가는 최형우(삼성)와 양의지(두산 베어스)는 이날 황금장갑 1개씩을 추가하며 역대 최고령, 역대 최다 타이 기록을 각각 세웠다.

이들은 나이가 무색하게 리그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구자욱 역시 "어떻게 보면 최형우 선배

님과 (양)의지 형이 이렇게 상을 많이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두 선배처럼 계속 골든글러브를 받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지난 2012년 2차 신인드래프트 전체 12순위로 삼성에 입단한 구자욱은 곧바로 상무(국군체육부대)에서 기량을 쌓았다.

2015년부터 1군 무대 누비며 그해 신인왕까지 차지한 그는 올해까지 벌써 KBO 리그에서 11시즌째를 보냈다.

팀에서는 주장을 맡고 있으며, 리그에서도 중 고참급 연차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자신처럼 질주하는 젊은 후배들과 자신이 꿈꾸는 미래처럼 든든한 선배들을 보며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뉴스시스



영광군 유소년 승마단, 승마대회에서 연속 입상
장애물, 권승경기 등 다양한 종목에서 2개 대회 연속 입상

영광승마장 유소년 승마단이 12월 첫째 주에 열린 두 개의 유소년 승마대회에서 연이어 입상하며 경쟁력을 과시했다. 선수들은 12월 5일 제3회 광양시승마협회장배 유소년승마클럽 대항전과 12월 6일 '제1회 순천시장배 팔마 유소년 승마대회'에 출전해 이틀간 총 9개의 상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첫째 날 광양시승마협회장배 대회에서 영광군 유소년 승마단은 장애물과 권승경기, 릴레이 등 여러 종목에서 두루 성과를 거뒀다. 장애물 40Class 종목에서는 신강희철 학생이 2위, 이재후 학생이 3위를 차지했고, 장애물 50Class에서도 신강희철 학생이 다시 2위, 박정은 학생이 3위에 올랐다. 권승경기에서는 정성결 학생이 3위를, 릴레이 경기에서는 박정은, 이재후, 신강희철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3위를 기록하며 고른 활약을 펼쳤다. 다음날 순천시장배 대회에서도 영광승마장 유소년 선수들의 활약은 이어졌다. 장애물 20Class 종목에서 이기쁨 학생이 2위를, 정성결 학생이 3위를 기록했으며, 권승경기에서는 정성결 학생이 다시 한번 2위에 오르며 두 종목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선수들이 짧은 기간 두 대회에 연속 참가했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꾸준한 훈련과 강한 집중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유소년 선수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2017년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하여 체계적인 승마 교육과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유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영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형 운암 3단지 재건축공사사업조합
시공 GS건설
이현식/건설
HDC 엔지니어링

굿바이 골에 문위크까지... 이름값만큼 화려했던 링가드의 고별전

링가드, 10일 멜버른전 끝으로 FC서울 떠나
두 시간간 K리그1 60경기 16골 6도움 기록

"감사합니다. 사랑해."

프로축구 K리그 역사상 최고의 이름값으로 주목받았던 FC서울 주장 링가드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수호신(서울 서포터즈)'과 작별했다.

링가드는 지난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멜버른 시티(호주)와의 2025~2026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6차전 홈 경기 중 전반 31분 최준의 크로스를 살려 선제골을 기록했다. 서울은 링가드의 선제골을 결승골로 지켜려 했으나, 후반전 통통의 동점골을 내주며 1-1로 비겼다.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친 서울은 승점 9(2승 3무 1패)로 동아시아 5위에 자리했다.

이날 경기는 링가드의 고별전으로 키프트 전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링가드는 작년 2월 서울에 깜짝 입단하며 한국 무대에 입성했다.

팬유 시절 말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임대, 노팅엄 포리스트 이적을 거치며 기량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한때 세계 최고 레벨에서 뛰었던 선수이기에 더욱 놀라웠다.

링가드는 서울 입단 후 두 시즌 동안 K리그1 60경기 16골 7도움의 성적을 거뒀다.

이번 시즌 처음 밝은 ACLE에선 6경기 3골 3도움을 기록하며 견재함을 과시했다.

이날 링가드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던 전반전 완벽한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대에 부응했다.

특정 세리머니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문위크'를 선보여 서울 팬들을 열광에 빠뜨렸다.

비록 무승부로 끝났지만, 맹활약을 펼친 링가드는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

도까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링가드는 K리그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건 경기장 잔디다.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땅 밑에 히팅 시스템이 있어서 눈이 와도 경기와 훈련하는 데 지장이 없다.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있다"고 말했다.

또 "클럽하우스를 비롯한 구단 시설도 좀 더 발전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체력적,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심리적, 정신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판도 발전이 필요하다. 나는 심판과 문제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시즌을 치르면서 일부러 분노를 조장한다는 느낌을 받은 경기가 많았다. 감정적으로 경기를 조절하기 힘들 만큼 경기를 운영하는 적도 있어서, 반드시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시스

FC서울 링가드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2026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6차전 FC서울 vs 멜버른 시티 경기에서 골과 별점을 마친 뒤 팬들에게 마지막 세리머니를 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스